

# 근대 동아시아의 이상사회론

## The Theory of Utopia in Modern East-Asia

이제까지 근대 동아시아의 사상과 사회변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의 철학도 점차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금의 한국이 처한 국제적 혹은 지정학적 위치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더욱 촉구하고 있다. 근대의 아시아는 대내적으로는 민생과 민주의 과제를,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과 근대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의 서구 열강은 자신들의 경제, 정치적 이익을 세계화의 보편적 추세로서 아시아에 강요했고, 아시아 역시 그러한 추세에의 참여 여부로 심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강대국도 정보, 기술과학과 같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세계화와 군사적 세계화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미 그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세계그물망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개방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지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다급한 과제로서 던져지게 되었다.

이 특집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19세기 근대 동아시아의 이상사회론을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로 나누어 현재 한국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대표적 사상가를 각각 연구한 것이다.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백용성의 이상사회와 불교개혁론(김정희), 2. 한국: 동학의 이상사회론(한자경), 3. 중국: 강유위(康有爲)의 세계의식과 이상사회(이규성), 4. 일본: 나카에 조민의 이상사회(이혜경).

이 연구가 비록 19세기의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시대의 사상가들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고민하였고 그 해결을 위한 자기 나름의 분투를 하였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연구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어떤 암시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